

화성군

봉담역 말농악

·
·
·



봉담역말농악

1. 전승지

화성군 봉담면 역말마을

2. 구 성

역말농악은 크게 도드래가락, 자진가락, 길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3채(3가지 타법)로 나뉘어진다.

3. 줄거리 및 내용

1) 행진가락

역말농악에서는 원래 도드래가락으로 입장하여 농악을 시작하며 상모의 화려한 멋이 일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행진가락이라는 장단으로 시작하여 자리를 잡은 후에 자진

가락으로 짧게 이어진 후 인사가락과 더불어 인사 후 본내용으로 들어간다.

이 행진가락은 일반적으로 동살풀이라고 불리며 2분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양 리듬에 흡사한 장단으로 경쾌한 리듬이 요즈음 현대 후세에 가장 잘 어울리며 놀이가락, 행진곡 등으로도 불린다.

2) 길가락

7채, 21채라고도 하며 원래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동시에 길에서 치는 가락으로 특별한 몸동작이나 춤사위가 없으며 걸음걸이에 맞



취 가볍게 걸으며 연주한다. 이때 태평소는 일반적으로 양산도 가락을 길가락에 맞추어 느리게 연주한다.

3) 상 태(11채)

일반적으로 6채(마당일채)라고 하며 길가락으로 이동한 대열이 놀이마당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판굿으로 넘어가기 위한 길가락의 맺이가락으로 다소 빨리치기 시작하며 짧게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빠르기에서 도드레가락으로 넘어간다. 이때 상모는 돌리지 않으며 아래 2회, 위 1회의 도드레가락이 사용된다.

4) 도드레가락(도드레기·다드레기)

일반적으로 자진모리, 3채라고 하며 가장 많이 쓰는 가락으로 종류 및 방법이 다양하다. 3분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춤사위가 가장 많고 신나게 칠 수 있다. 도드레기 3채라고 하여 빠르게, 느리게, 재게 침으로써 같은 가락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재주를 부리며 판을 펼칠 수 있다. 오금돋음, 까치걸음, 발치기, 깨금뛰기 등의 걸음걸이와 외사, 양상치기, 번개상, 나비상 등의 벽구놀이가 판의 주를 이루며, 태평소는 도드레가락을 연주한다.

5) 도드레기 맺이가락

8박이라고 하며 도드레가락 내에서의 가락 변화와 춤사위 변화, 다른 가락으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가락으로 사용한다.

6) 자진가락

일반적으로 이채, 휘모리라고 하며 짚이들이 놀이판에 도착하여 인사 직전과 판을 끝맺을 때에 정열상태와 자세를 유지하고 짧게

연주할 때도 쓰인다. 가장 빠른 가락으로 흥이 나며 농악의 최고조를 의미하고, 특히 벽구잡이들은 자반뒤집기, 양상치며 번개상 등 자기의 최고 기량을 펼칠 수 있다.

7) 업어배기

자진가락(이채)의 변형으로 우도풍물의 진오방진과 흡사한 가락으로 자진가락 사이사이에 연주하여 가락에 변화를 주면서 그 흥을 계속 이어나아가는 가락이다.

이때에는 쇠와 장구의 타범만 다를 뿐 다른 악기는 큰 차이가 없다. 벽구잡이들은 자진가락에서의 많음 춤동작에서와는 달리 제자리에서 발을 바꾸며 빠른 벽구치기로 넘어간다.

8) 짚지패가락

일반적으로 굿거리, 민요가락 등으로 부르며 농악에서 느린 가락에 속한다. 자진가락 이후에 판의 분위기를 여유롭게 이어나가면서 민요조에 맞는 춤가락으로 청중과 하나가 되는 마당이나, 상모와 벽구는 치지 않으며 태평소에서 흘러나오는 경기 민요의 흥겹고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어깨춤과 무등춤으로 풍부한 우리 음악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가락이다. 짚지패 가락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연주하며 이후에는 앞에 연주한 도드레가락, 자진가락 등의 흥겨운 가락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짧은 자진가락과 인사가락으로 판을 맺으며 퇴장한다.